

## 1. 인터뷰

### 1. 부원장을 맡으며 - 전상인 부원장

조직이론에서 보면 대학구조는 이중적이며 모순적이다. 한편으로 대학은 수평적 공동체다. 자유로운 구성원들 사이의 평등한 관계는 학문의 발전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다른 한편으로 대학은 위계적 관료조직이다. 대학이라는 거대한 사회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행정은 불가피한 것이다. 대학의 발전은 따라서 학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공동체적 분위기와 행정의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관료적 조직원리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달려 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원장이라는 자리는 누가 맡아도 해야 되는 직위다.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는 것이 대학교수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었지만 누구라도 언젠가는 이런저런 행정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게 되는 운명에 직면한다. 바로 이것이 싫든 좋든 이 자리를 맡게 된 배경이자 경위이다.

부원장의 일차적 임무는 원장님을 잘 보필하는 것이다. (위낙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해야 하는 것이 부패 자로 시작하는 자리다). 그 다음으로는 교수님들의 연구와 교육, 학생들의 학업을 최대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직원들의 업무능력을 극대화하는 일이다. (사실 요새는 학생들보다 직원이나 조교를 더 자주 만나는 것 같다). 대외적으로도 대학본부나 타 대학(원)측과 협의할 사안들이 자주 발생한다. (얼마 전에는 부학장회의의 끝에 학부 1학년 때 신입생 환영회를 방불케 하는 혹독한 폭탄주 신교식을 치르기도 했다).

이런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평교수로 지낼 때 비해서는 아무래도 개인 시간을 많이 뺏길 수밖에 없다. 또한 학교에 나와 있는 시간도 더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기왕 맡기로 한 보직이니 가급적 즐겁게 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마음은 굳게(?) 먹고 있지만 돌이켜 보면 이 자리를 맡은 지 이제 겨우 한 달 쯤이다.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듯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시계도 제대로 돌아가기 바랄 따름이다.

### 2. 졸업식 식사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종화 원장

오늘 103호 대강당을 가득 매운 졸업생과 가족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저희들 이 지난 몇 년간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하고 강의를 한 보람을 느낍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졸업, 학위취득을 축하합니

다. 이 자리에는 현재 박사학위 수여자 8명, 석사학위 수여자 48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서 영예의 가운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가족과 교직원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열심히 하시고 또 잘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눈도 많이 와서 지구 온난화가 정말 오는 것인지를 의심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거의 4월 중하순의 따뜻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입학식과 졸업식은 원래 대단히 추운 것이 정석이었는데, 금년 졸업식이 가장 따뜻한 것을 볼 때,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축복받는 졸업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졸업은 영어로 commencement라고 하며, 그것은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는 사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떠나는 대학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2009년도 졸업식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공황을 능가할 지도 모르는 세계경제 위기가 닥쳐왔고 우리나라 경제의 상황과 여러분들 선배들의 취직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생들에게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희망·노력·끈기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 번 남극탐험을 갔으나 결국 남극점에 도달을 하지 못했지만 이름을 남긴 Ernest Shackleton(1874~1922)이라는 남극 탐험가의 고난의 얘기를 해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졸업은 따뜻한 봄날씨와 마찬가지로 1년 동안 많은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딴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앞으로 몇 개를 더 보태어 순위가 몇 개단이나 더 올라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젊은 20대들이 해 내는 세계적인 경쟁에서의 승리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힘과 노력을 축하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대대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사회의 저력, 국가의 힘, 국가의 인격이라고 하는 국격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 각국으로부터 받은 원조액이 130억달러가 넘었는데 2008년에 우리가 이미 외국에 원조를 해준 액수가 8억 달러를 넘었고 아마도 2009년도에는 그 배 이상의 해외 원조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개발국가에서 지금은 거의 세계에서 10위권으로 들어갈 정도로 국력이 신장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프랑스, 미국, 일본의 대기업을 물리치고 아랍에미리트에서 400억 달러라고 하는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는 힘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원과 관계가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사례를 가지고 다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출발선 상에서 이미 여러분들의 1년 전 선배나 예전 세대들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그 바탕이 대단히 든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노력에 의해서 우리 세대보다 훨씬 큰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근래에 우리의 경쟁자라고 하는 일본에서는 별로 욕심도 없고 좋은 일자리를 가지기 위해서 힘들어

일을 하지도 않고, 편안함에 안주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풀만 먹고 산다고 하여 초식남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고기만 먹는 육식남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무언가를 더 찾아서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서 항상 새로움을 갈구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육식남, 육식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학이 2009년도에 영국의 The times평가에서 몇 년 사이에 50~51등에서 47등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대학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에게 “어느 대학 출신자들이 똑똑하고 좋은가?” 라고 물었을 때, 서울대학을 세계에서 25번째로 좋은 대학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세계 500대 상장 기업의 CEO를 배출한 대학들을 추출해 봤을 때 1등이 하버드, 2등이 동경대, 5등이 서울대학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불만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의 등록금에 비해서는 몇 배 더 값진 교육을 제공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56명의 학위취득자 중에서 대강당에서 하는 식장에 나온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보시겠습니까? 우리 환경대학원의 자리가 비어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울대학교에는 졸업생이 40만명, 석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7만명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큰 기업의 CEO를 배출할 수 있었던 학교인데 환경대학원에서만 여러분의 위치를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서울대학교 전체가 여러분의 미래 성장을 위한 후원자가 된다는 생각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경대학원 창설이 금년에 40년이 넘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사회적인 수요가 많을 때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정치권과 언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우리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 대상입니다. 세종시의 문제를 보면, 과연 국가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새로운 행정 도시를 만드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지역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대학과 기업을 보내는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격렬하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대학원의 교수님들과 학생들은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도 우리 대학원의 연구 분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은 스티브 잡스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애플사의 공동 창업자로서 회사의 CEO가 되었습니다. 사실 스티브 잡스의 어머니는 대학을 다니다가 원하지 않는 얘기를 가졌고, 어쩔 수 없이 입양을 시키는 조건으로 이 아이를 반드시 대학 교육을 시켜야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를 입양한 사람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크게 능력이 많지 않았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사립대학이라 등록금도 꽤 비싼 곳에 들어갔는데 6개월 1학기를 다니고 보니까 도저히 학자금 조달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아이폰, 아이팟 등을 개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2005년 6월 스탠포드대학 졸업생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전하며 졸업식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티브 잡스의 표현을 빌리면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매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스티브 잡스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오늘 죽는 날이라도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인가를 매일 아침 집을 나서면서 거울을 보면서 묻고, 스스로에게 묻고 다짐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Stay Hungry, Stay Foolish.” Stay Hungry는 가장 높은 목표를 세우고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중대한 일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론 작은 성취에 만족해 게을리 하면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가족, 국가 전체는 큰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Stay Foolish는 그것이 아무리 어렵다고 힘들어서 도전할 가치가 없다고 주변에서 말리더라도 우직하게,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가치 있다고 느끼는 일에 도전해 보라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2010년 호랑이해를 맞이해서 졸업하는 여러분이 졸업 후에도 항상 좋은 일이 생기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3. 졸업식 축사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강길부 동창회장

존경하는 박종화 원장님을 비롯한 모교 환경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오늘 학위수여의 영광을 받는 졸업생 여러분들과 가족·친지분들, 오늘 영광스러운 학위수여식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환경대학원의 기라성같은 동문들을 대신하여 사회로 진출할 후배들을 만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에서 격려사를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먼저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피땀으로 뒷바라지해 오신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정성으로 가르침을 베푸신 교수님들의 은덕에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환경대학원 선배이자 사회에 먼저 진출한 선배로서, 앞으로 사회생활과 인생설계에 대한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졸업생 여러분이 학교를 벗어나 사회에 진출함과 동시에 환경대학원 동문으로서 사회적으로 많은 역할이 부여받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우리 환경대학원 졸업생들은 복잡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환경대학원 졸업생들은 대학원 생활동안 갈고 쌓은 실력의 진가가 발휘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대학원 졸업생들은 각계의 분야에서 저마다 최고를 입지를 구축하며 사회의 지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간 우리 동문들이 이루어놓은 사회적인 명망은 그저 얻어진 것은 분명 아닙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성찰을 통해서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동문이 되시는 자랑스런 후배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환경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여러분 각자는 서로에게 훌륭한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대학원 기간 동안 형성된 끈끈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이 사회에 큰 기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환경대학원 동창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졸업하여 동창회의 새 가족이 되시는 여러분들께서 동창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우리 환경대학원 동창회는 보다 훌륭한 협력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교수님들과 원우님들 그리고 가족과 친지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거듭 여러분의 학위취득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앞길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II. 환경대학원 소식

### 1. 유병림 교수님 정년퇴임식

지난 2010년 3월 3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설립과 더불어 지난 37년여 동안 교단을 지키며, 조경 학문분야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신 유병림 교수(사진)의 '정년식 및 출판기념회'가 진행되었다.



유병림 교수의 가르침아래 현 한국조경분야를 이끌고 있는 후학들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150여명의 인사가 자리를 찾아 유병림 교수의 정년을 빛내주었다. '정년식 및 출판기념회'는 총 3부(1부:정년식 및 고별강연, 2부:작품전시, 3부:리셉션)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특히 유병림 교수의 제자들로 구성된 유림마을에서는 교수님에 대한 주변 인터뷰와 작품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스승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유병림 교수는 "사이버스페이스상, 가상경관에 주목하라" 라는 주제로 사회적 흐름과 조경과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춘, 앞으로 조경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고별강연을 하였다.

### 2. BK동 이전과 대학원 공간 이동

BK3동 종합교육연구단지 완공에 따라 우리 환경대학원에 990㎡(약300평)의 공간이 새롭게 배정되었다. 이에 환경대학원에서는 지난해 12월 제주도 전체교수세미나의 중요안건으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여러 회의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간 이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동계획은 교육연구단지의 특성을 잘 고려하고 타 학문과의 교류를 위하여 5층에 위치하고 있는 환경계획연구소와 4층 설계실의 환경계획학과 일부 연구실을 이전하기로 최종결정하였다. 그래서 BK3동 환경대학원 공간에는 행정실1실, 환경계획연구소 일반 연구실4, 렌탈 오피스 3실, 교수 연구실 2실, 세미나실 2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환경대학원내에서도 공간이동이 있었다. 5층 계획연구소위치에 환경조경학과

3층 스튜디오가 이동하였고 306호는 100석이상 규모의 대형강의실로 활용을 위해 리모델링을 준비 중이다. 환경대학원내에 100석 이상의 대형강의실이 없어 각종학회나 대형특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공간 배정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 3. 환경대학원 정원가꾸기 행사

환경대학원에서는 4월 2일(목) 봄맞이 정원가꾸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환경대학원 주변은 서울대 관악캠퍼스 내에서도 정원이 잘 가꾸어진 것으로 유명한데 이번에는 자연소멸된 부분을 파악하여 한 국자생식물협회와 성종상교수(환경조경학)의 자문을 받아 이루어졌다. 이번행사에는 블루베리, 붓꽃, 수선화, 강국, 할미꽃, 돌단풍등 약1400본의 포트를 식재 하였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앞으로 진행 하게 될 나무와 화초명찰 선호도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 4. 졸업식

- 일 시 : 2010. 2. 26.(금) 16:00
- 장 소 : 환경대학원 103호
- 참 석 : 전 교수 및 졸업대상자 56명
- 식 순
  1. 개식
  2.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사회자) 및 애국가 제창
  3. 학위기 전달
  4. 시상(원장)
    - 우수논문 표창장 수여
      - 환경계획학과 : 김민희, 박정호, 임두리
      - 환경조경학과 : 박영룡, 성혜정, 이현덕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표창장 전달

- 환경계획학과 : 김예지
- 환경계획학과 : 박정호
- 교통학회장 표창장 전달
- 환경계획학과 : 송민겸
- 5. 식사(박종화 환경대학원 원장)
- 6. 축사(강길부 동창회장)
- 7. 폐식
- 8. 축하/감사 인사
  - 브라스 밴드 축하연주
  - 감사인사 및 축하 ceremony
  - 기념촬영

■ 2009학년도 전기 졸업생 명단

〈총 56명〉

도시계획학 박사(3명)

“이세규”, “이현정”, “김훈상”

공학 박사(5명)

“김병관”, “김연진”, “신지영”, “김은영”, “한성미”,

도시계획학 석사(28명)

“이승지”, “박주미”, “이경은”, “정윤숙”, “허은진”, “강영은”, “김민주”,  
 “김민지”, “김민희”, “김예지”, “김윤지”, “김정희”, “김희정”, “남명근”,  
 “문준호”, “박정호”, “송민겸”, “심재인”, “안승혁”, “양희진”, “오관교”,  
 “오현상”, “임두리”, “임현섭”, “장상우”, “장호석”, “홍경선”, “황윤섭”

조경학 석사(20명)

“강대욱”, “박만식”, “안미선”, “유청오”, “윤병철”, “이동복”, “이병우”,  
 “이 혁”, “이혜민”, “전진현”, “박영룡”, “성혜정”, “신서경”, “우동걸”,  
 “윤혜영”, “이초원”, “이현덕”, “전혜선”, “정희경”, “황동호”



## 5.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환경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2월 17일에 환경대학원 103호에서 열렸다. 석사 및 박사 과정 신입생 90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오리엔테이션은 전상인 부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전상인 부원장은 신입생들에게 현재 사회가 우리 학문 분야에 요구하는 것들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부단한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점심식사를 한 후, 환경계획 학과는 103호에서 환경조경학과는 405호에서 양 학과장 주관으로 수료요건 및 학위논문 등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 6. 교수 동정

### 환경계획학과

#### ■ 이도원 교수

연구실 학생들과 함께 4편의 국제학술지 SCI 논문을 게재하였다.

- Koh, I., S. Kim, and D. Lee(2010), Effects of bibosoop plantation on wind speed, humidity and evaporation in a traditional agricultural landscape of Korea: Field measurements and modeling. Agriculture, Ecosystems and Environment 135(4):294-303 Submitted on on 2 March, 2009. pressed on 1 February 2010.
- Kim, D., S. Mu, S. Kang, and D. Lee. 2010. Factors controlling soil CO<sub>2</sub> effluxes and the effects of rewetting on effluxes in adjacent, coniferous, and mixed forests in Korea. Soil Biology and Biochemistry 42(4):576-585. pressed in April 2010.
- Kim, Y., S. Kang, J.-H. Lim, D. Lee, J. K, and B. Lee. 2010. Inter-annual and inter-plot variations of wood biomass production as related to biotic and abiotic characteristics at a deciduous forest in complex terrain, Korea. Ecological Research (in press)
- Kim, D., J. Park, D. Lee, and H. Kang. 2010. Removal of nitrogen and phosphorus from effluent of a secondary treatment plant using a pond-marsh wetland system. Water, Air, and Soil Pollution (in press).

#### ■ 홍종호 교수

2009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체계구축 기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Working Group 위원으로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GRI Guideline 체계보완 워크샵에 참석하였으며,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일본 메이조 대학이 주관한 한·중·일 환경정책 국제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자원순환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 ■ Sofia T. Shwayri 교수

2010년 1월 27일에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David Anderson 씨와 결혼하였다.

#### ■ 김경민 교수

국토연구 9월호 (v.62)에 "서울 오피스 시장의 임대료조정메커니즘: 자연공실률과 실질임대료 관계를 중심으로"를 게재하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오피스 자연공실률과 초과공실률을 산출하여, 공실률과 임대료간의 임대료 조정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2010년 2월 환경대학원을 visiting fellow로 방문한 하버드 대학교 건축대학원 부동산학과 디렉터인 Richard Peiser교수와 함께, 신도시 개발, 성장 및 평가에 관한 공동 연구를 시작하였다. 공동연구에서는 서구 신도시와 달리 단 기간 안에 건설된 한국 신도시, 특히 분당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수행될 예정이다.

#### ■ 장수은 교수

2편의 국제학술지 SSCI 논문을 게재하였다.

- Justin S. Chang., Assessing travel time reliability in transport appraisal,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18(2010), 419&#8211;425.
- Justin S. Chang., Estimation of option and non-use values for intercity passenger rail services,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18(2010), 259&#8211;265.

연구년: 이영인 교수, 최막중 교수

### 환경조경학과

#### ■ 양병이 교수

2009년 12월 14일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마스터플랜 공모전」에 심사위원장으로 참석하였다. 2010년 3월 2일에는 「부산 가덕도 개발개념 국제 현상공모전」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였다.

## ■ 박종화 교수

2010년 2월 9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 산림녹화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미항공우주국(NASA) 지구관측위성의 MODIS 센서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에 시급히 나무를 심어야 할 민둥산 면적이 서울시의 23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 조경진 교수

2010년 3월 11일에 경기도·농림재단 주최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창조적인 정원과 공원만들기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기조강연을 통하여 현대 조경의 흐름과 변화하는 도시공원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 도시재생과 창조적인 공원 만들기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를 소개하였다.

## 7. 환경조경학회

사단법인 한국조경학회 주관으로 서울대 박물관에서 이사회 및 정기총회 우리 대학원에서 춘계학술대회가 지난 3월 26일(금)에 열렸다. 오전에는 박물관 대강당에서 이사회 차기회장선거가 이루어졌고 바로 일본 호고현립대학 히라타 후지오(平田 富士男)교수의 “일본에 있어서의 지정 관리자 제도와 보다 좋은 공원녹지 관리의 실현을 향한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이 열렸다. 오후에는 환경대학원에서 4개 분과 학술발표대회가 이루어지고 2개의 연구회에서 세미나가 이루어졌으며,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 오후 6시경 환경대학원 2층 P&C홀에서 퓨전국악팀 헤이아의 공연과 함께 리셉션이 열렸다.



## 8. 환경계획학과 특별 강연

2010년 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환경대학원 205호에서 'Regenerating old suburb'를 주제로 하버드 디자인 대학원의 R. Peiser 교수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도시 개발 및 금융을 가르치고 있는 Peiser 교수는 아시아 및 세계 각지의 신도시 개발 및 재개발 사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별강연에서는 재개발 및 신도시 개발 성공 요인을 중심 주제로 도시 개발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 위험관리, 민관 협력 등이 다루어졌다. Peiser 교수는 세계 각지의 신도시 및 재개발 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도시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과 토지소유주와의 긴밀한 협조, 지역 사회적 위험 요소 관리, 충분한 시장 조사, 쾌적한 보행환경과 공공용지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국내 및 해외 도시계획에 관심을 가진 환경대학원 학생들에게 이번 강연은 도시 개발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접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 9. 환경조경학과 특별 강연

2010년 3월 15일 오후 4부터 6시까지 환경대학원 103호에서 'URBANSCAPES'라는 주제로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의 Marc Brossa 교수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Marc Brossa 교수는 스페인 폴리테크닉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건축 및 도시설계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건축 및 도시, 조경 등의 분야에서 실무를 거친 후,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특강에서는 현재 조경분야의 패러다임을 되짚어보고 건축, 도시, 조경, 생태적 관점 등에서 실시된 본인의 프로젝트를 설명하였다.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입학하는 환경대학원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그의 특강은 지속가능하면서도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디자이너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10. 조경학과 답사

환경조경학과에서 학기가 시작함과 동시에 여러 과목에서 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관해석(황기원 교수)은 서울 시내를 중심으로 경관답사를 실시하였고, 커뮤니티설계(조경진 교수)은 인천 배다리 답사를 실시하였고, 재식설계(유병림 교수)는 순천 정원박람회 설계대상지 답사를 다녀왔다. 오는 4월에는 단지설계1(성종상 교수), 단지설계2(Wybe Kuitert교수), 재식설계(유병림 교수) 수업에서는 중국 북경 올림픽 사이트 현장 답사를 계획 중이다.

## Ⅲ. 도시·환경 고위정책과정

### 1. 환경대학원 도시·환경 고위정책과정 제9기 도시·환경 최고전문가과정 수료식

지난 3월 11일, 호암 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제9기 도시환경최고전문가과정의 수료식이 있었다. 2009년 10월 6일 출범하여 6개월간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참가한 36명의 Fellow중 35명이 수료를 하였다. 박종화 환경대학원장은 식사를 통해, 격무 속에서도 모든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수료하는 Fellow들을 축하하고, 오늘이 도시환경분야의 최고전문가로 새롭게 태어나는 날임을 강조하였고,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환경 분야의 발전에 큰 역할을 당부했다.



## 2. 도시환경최고전문가과정 해외시찰

제9기 도시·환경 최고전문가과정에서는 “지역축제와 도시마케팅”라는 주제로 중국 하얼빈과 일본 삿포로의 동계 지역축제와 도시마케팅 전략을 비교하는 해외시찰을 가졌다.

중국의 하얼빈은 혹독한 추위의 겨울동안 송화(松花)강에서 무한정 공급되는 얼음을 활용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얼음조각 축제인 빙등제·빙설제를 개최하고 있다. 일본의 홋카이도 역시 겨울철에 풍부하게 내리는 눈을 활용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눈축제를 열고 있다. 하얼빈 빙등제가 하향식의 관(官) 주도형으로서 외부 관광객 유치를 주목적으로 한다면 삿포로 눈축제는 지역사회 주민과 민간이 주도하는 상향식 축제로서 지역공동체가 함께 즐기는 성격이 강하여 축제의 규모와 접근방식에서 두 도시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번 해외시찰에서는 지역축제뿐만 아니라, 동물원의 관람방식을 혁신하여 성공한 사례로 잘 알려진 아사이가와 동물원과 도시재생을 위한 무리한 투자 끝에 파산에 이른 유바리시의 파산과 재정재건 노력을 함께 둘러보았다. 또한 중국에서는 하얼빈 중앙대가, 흑룡강성박물관, 성소피아성당, 731부대 유적지, 안중근의사 기념관, 동북호림원 등 하얼빈의 역사·문화·자연·도시경관을 살펴보았다.



## 3. 2010년 도시환경포럼 1차 포럼개최

‘도시·환경포럼’은 도시·환경최고전문가과정을 수료한 Fellow들이 회원 간의 자발적인 상호학습을 지속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SGS동창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도시·환경포럼에서는 3월 25일(목) 오후 6시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1층 목련홀에서 2010년도 1차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도덕이 국가 경쟁력이다”라는 제목으로 문용린 (前) 교육부장관(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의 주제 강연이 있었으며, 강연 이후에는 Fellow 간의 상호 의견 교류 및 친목 도모 활동이 이루어졌다.

#### 4. 환경대학원 도시·환경 고위정책과정 제10기 CEO지속가능경영포럼 출범식

환경대학원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의 제10기 CEO지속가능경영포럼이 4월 6일(화) 오후 6시에 출범식이 열렸다. 출범식에는 환경대학원 원장님과 원내 교수님들, 그리고 이번 10기에 참여하는 민간, 정부, 학계 등 각 부분의 최고경영자들과 리더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이번 과정에서는 기존의 경제·환경·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더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등의 새로운 커리큘럼을 추가·개설하였다.



#### 5. 2010 SGS동창회 해외답사 안내

환경대학원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동창회(SGS)에서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장려하고 유대를 도모하기 위해 2006년부터 환경대학원과 함께 'SGS동창회 해외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에는 7월 31일(토) - 8월8일(일)에 '바바리아'에서 '보헤미아'까지 맥주 기행과 함께 하는 독일·체코·오스트리아 중세~근대 도시 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답사 예정도시는 다음과 같다.

- [독일] Saxony(구동독지역): 드레스덴\*, 마이센, 라이프치히  
튀링기아(Thuringia, 구동독지역) : 바이마르\*, 에르푸르트, Eisenach  
바바리아(Vabarria): 밤베르크\*, 뷔르츠부르크\*, 로센부르크, 뉘른베르크,  
레젠그부르크\*, 뮌헨, 뉘른

[오스트리아] 티롤(Tirol): 인스부르크 / 잘스부르크\*, 할슈타트\*

[체코] 보헤미아(Bohemia): 체스키 크루믈로프\*, 체스케 버드와이저, 쿠트나호라\*,  
플젠, Karlstejn, 프라하\*

모라비아(Moravia): 텔치\* 등이다. (\* 세계문화유산)

□ 인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최막중 교수

□ 참가신청 및 문의 : 도시환경 최고전문가과정 김배 조교 (Tel. 880-8525)

환경대학원 동창회 고진수 조교 (Tel. 880-5669)